

<2010년 11월 6일 토요일 새벽 잠언> 주편

* 11월 5일 금요일 잠언을 읽어 주고, 오늘 잠언을 이어서 읽어 주세요.

1. 사람들은 자기 기질, 재능, 자료가 다 있는데도 끝까지 만족하게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아쉽게 문턱에서 주저앉는다. 방까지 들어가야 된다.
2. 문턱을 넘어 방까지 들어와 너와 나만 만나는 장소까지 와라. 끝까지 다. 만족하게다. 충만하게다. 완전하게다.
3. 새벽부터 천릿길을 달려 와 놓고서는 어떤 자는 대문밖에 서 있고, 어떤 자는 정원에 서 있고, 어떤 자는 응접실에 서 있고, 어떤 자는 방문 앞에 서 있고, 어떤 자는 방문턱에 서 있다. 끝까지 하고, 완전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여 방까지 들어와라. 그리고 나와 만나자.